

국내 다국어/다문화 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연구*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Library Services in Korea

조 용 완(Yong-Wan Cho)**

이 수 상(Soo-Sang Lee)***

< 목 차 >

I. 서 론	5. 다국어/다문화 서비스 제공 현황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6. 다국어/다문화자료 종합목록 및 상호대차 참여의향
2. 연구의 내용	7. 다국어/다문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과제
3. 연구방법	IV. 국내 도서관 등의 다국어/다문화 서비스의 발전방안
II. 외국 도서관의 다국어/다문화 서비스 사례	1. 국가 도서관 정책단위 차원의 다국어/다문화 서비스 발전 방안
III. 국내 도서관 등의 다국어/다문화 서비스 실태	2. 지역 도서관 차원의 다국어/다문화 서비스 발전 방안
1. 설문조사 참여기관 정보	V. 결 론
2. 다국어/다문화자료 보유 현황	
3. 다국어/다문화자료 입수방법과 선정주체	
4. 다국어/다문화자료 목록 현황	

초 록

최근 우리사회의 다문화사회의 진전과 함께 민간단체 등에서 비롯된 다국어/다문화자료의 구비와 다국어/다문화 정보 서비스를 위한 노력이 공공도서관으로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다국어/다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들은 국가 도서관 정책단위들(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등)로부터 정책, 예산, 기술적 지원을 풍부하게 얻지 못한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자료를 구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개약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국내 도서관들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다국어/다문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하고자 전국적 차원에서 국내 도서관들의 다국어/다문화 서비스의 실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국어/다문화 서비스와 관련된 국가적 차원의 도서관 정책 뿐만 아니라 다국어/다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개별 도서관들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키워드: 다문화사회, 다국어 자료, 이주민, 도서관 서비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nationwide status of the multicultural and multilingual library services in Korea. To do this, a survey aimed at the public libraries, th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he governmental bodies that provided library services with multicultural and multilingual materials was conducted. Also, 15 librarians and the persons in charge were interviewed. As a result of this study, some recommendations not only regarding national library policies but also regarding public libraries providing multicultural library services to local users were suggested.

Keywords: Multicultural Society, Multilingual Literature, Immigrant, Library Services

* 본 논문은 2010년 국립중앙도서관의 "국내 다국어 정보서비스 현황 및 정보자원 실태조사 연구" 연구보고서를 수정·보완한 논문임.

**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전임강사(yongwan@cu.ac.kr) (제1저자)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sslee@pusan.ac.kr) (교신저자)

• 접수일: 2011년 2월 25일 • 최초심사일: 2011년 3월 9일 • 최종심사일: 2011년 3월 28일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010년 9월 30일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숫자는 약 124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¹⁾ 1990년 약 5만 명 수준에 불과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는 중소기업의 노동력 부족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유입, 국제결혼의 증가, 해외동포에 대한 입국문화 확대에서 비롯되고 있다.²⁾ 이러한 이주민들의 국내 유입의 증가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미 우리사회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며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진행되고 있다. 중소기업 중 이른바 '3D업종'에 속하는 기업들의 구직난은 지속되고 있으며, 농촌지역과 도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결혼문제도 여전한 상황이다. 2020년까지 70만~140만 명의 노동인력 수급불일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동인력감소 문제 해소와 안정적 경제성장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이주민 유입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다.³⁾

최근 우리사회의 다문화사회의 진전과 함께 민간단체 등에서 비롯된 다국어/다문화자료의 구비와 다국어/다문화 정보서비스를 위한 노력이 공공도서관으로 확장되고 있다.⁴⁾ 이러한 서비스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이 경험하지 못한 종류의 서비스이다. 일부 공공도서관이 과거 영어, 일어자료 등을 구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는 있었으나, 최근의 다문화적 상황은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등 언어적 다양성으로 인해 자료의 선정과 입수부터 목록구축, 참고봉사, 프로그램과 이벤트, 각종 장비와 시설, 안내와 표시 등 모든 면에서 기존 도서관 서비스와는 다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다국어/다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들은 국가 도서관 정책단위들(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등)로부터 정책, 예산, 기술적 지원을 풍부하게 얻지 못한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자료를 구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개약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 도서관들은 앞서 시작한 도서관이 경험했던 불필요한 시행착오마저도 다시 반복하고 있고, 서비스 준비와 시행과정에서 생기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물어볼 기관조차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http://www.immigration.go.kr>> [인용 2010. 10. 15].

2) 삼성경제연구원, "다문화사회 정착과 이민정책," CEO Information, 756(2010), pp.1-2.

3) 상계논문.

4) 본 연구에서는 '다국어자료'라는 용어를 자국 외의 다른 나라 언어로 된 자료로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어가 아닌 영어, 일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러시아어, 태국어 등 많은 나라의 언어들과 다중언어/이중언어 기반의 자료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다문화자료'라는 용어는 국내 도서관들이 국내 이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들로 규정하였다. '다문화자료'의 의미는 '다국어자료'와 거의 같은 의미이지만, 최근 국내의 다문화 현상과 관련해 주로 중국과 몽골, 동남아시아(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남아시아(네팔, 인도, 파키스탄 등), 러시아권 등의 언어로 생산된 자료에 보다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국어자료의 관점에서 접근하지만, 주요 초점은 국내의 다문화환경을 고려한 다문화자료의 개념에 맞추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국내 도서관들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다국어/다문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하고자 전국적 차원에서 국내 도서관들의 다국어/다문화 서비스의 실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보다 앞서 다국어/다문화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온 외국의 주요 도서관 사례를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둘째, 전국 공공도서관 및 다문화 관련 기관에 대한 설문조사와 15개 도서관 등에 대한 방문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다국어/다문화 자료소장 현황, 자료입수 방식, 목록실태, 서비스 제공 현황 등 국내 도서관 등의 다국어/다문화 정보서비스 실태를 파악하였다.

셋째, 국내 다국어/다문화 정보서비스 관련 공공도서관 등에 대한 설문조사와 방문 및 면담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국내 도서관의 다국어/다문화 정보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국내외 도서관들 중에서 다국어/다문화자료 기반의 정보서비스 사례 조사를 위해 관련 문헌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국내 공공도서관과 다국어자료를 구비한 다문화 기관을 대상으로 다국어/다문화 정보서비스의 현황과 다국어/다문화자료 소장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Web기반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2009 한국도서관연감>에 수록된 전국 공공도서관 644개 외에 각종 언론기사 검색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다국어/다문화자료를 소장하거나 다국어/다문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 작은도서관, 시민단체, 종교단체,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 산하기관 등 총 745개 도서관 및 유관기관에 발송하였다. 설문조사의 주요 항목은 ① 조사 참여기관의 일반적 정보, ② 도서관 및 다문화 유관기관이 보유한 다국어/다문화자료 현황, ③ 다국어/다문화 자료입수 방법, ④ 다국어/다문화자료 목록 실태, ⑤ 다국어/다문화 서비스 제공 현황, ⑥ 다국어/다문화자료 종합목록 및 상호대차 참여의향, ⑦ 국내 도서관 등의 다국어/다문화 서비스 활성화와 관련한 국립중앙도서관의 과제별 중요도 평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완하고, 다국어/다문화 도서관 서비스 현장의 목소리를 연구에 반영하기 위해 국내 도서관 중에서 다국어/다문화자료를 구비하고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 경기, 충북, 충남, 대구, 경남, 부산 등지의 15개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2권 제1호)

〈표 1〉 본 연구의 도서관 방문 및 담당자 면담 내역

번호	방문 및 면담 일시	방문기관명	소재지	피면담자
1	2010. 10. 15. 14:00-14:50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대구	계장, 담당자
2	2010. 10. 16. 15:00-17:00	아시아공동체학교 국제어린이도서관	부산	상임이사
3	2010. 10. 18. 14:00-14:40	김해다문화도서관	경남 김해	담당자
4	2010. 10. 20. 14:00-14:30	성주도서관	경남 창원	담당자
5	2010. 10. 21. 15:30-16:10	청주기적의도서관	충북 청주	담당자
6	2010. 10. 21. 16:30-17:10	청주시립정보도서관	충북 청주	계장
7	2010. 10. 22. 09:30-10:10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경기 안산	담당자
8	2010. 10. 22. 11:00-11:50	서울시교육청 고척도서관	서울	계장
9	2010. 10. 22. 14:00-14:00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	서울	관장, 담당자
10	2010. 10. 22. 16:00-17:00	남양주 평내도서관	경기 남양주	계장, 담당자
11	2010. 10. 23. 09:30-10:10	시흥 다문화작은도서관	경기 시흥	담당자
12	2010. 10. 23. 14:00-14:30	천안 성환읍 다문화작은도서관	충남 천안	자원봉사자(직원 근무 안함)
13	2010. 10. 27. 14:00-14:30	칠암도서관	경남 김해	담당자
14	2010. 10. 29. 10:00-11:00	어울림 작은도서관	부산	담당자
15	2010. 11. 01. 10:30-11:30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 3호점	부산	담당자

II. 외국 도서관의 다국어/다문화 서비스 사례

1. Queens Borough Public Library⁵⁾⁶⁾⁷⁾⁸⁾⁹⁾¹⁰⁾

매우 다양한 민족들이 거주하는 미국 뉴욕의 퀸즈지역에 있는 이 도서관은 스페인어 117,000여권, 중국어 108,000여권, 한국어 30,000여권 등 25개 이상의 언어로 다국어장서를 제공하고 있다. 다국어/다문화자료의 입수를 위해 이 도서관은 지역 서점이나 중개업자, 기증 외에도 중국 상해도서관을 비롯해 러시아, 체코, 프랑스의 도서관들과 자료교환을 하고 있다. 다국어자료의 선정에 해당 문화권 출신자나 그 언어 사용 가능한 직원을 참여시키고 있으며, 편목부서에도 도서관에서 수집하는 해당 다국어에 능통한 직원들을 두고 있다. 다국어자료는 OCLC의 공동목록을 통해

5) Queens Borough Public Library Home page, <<http://www.queenslibrary.org/>> [cited 2010. 9. 2].
 6) 조용원, “국내 도서관의 다문화자료 입수를 위한 효과적 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9권, 제3호(2008), pp.429-456.
 7) 엄연숙,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도서관서비스,” 도서관문화, 제50권, 제6호, pp.57-66.
 8) 조용원, 이은주, 다문화사회에서의 도서관 서비스(경기도 : 경기도사이버도서관, 2010).
 9)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U.S.), *Library services for immigrants: A Report on Current Practices*, 2004, <<http://www.uscis.gov/files/nativedocuments/G-1112.pdf>> [cited 2010. 8. 24].
 10) Queens Library FACTS, <http://www.queenslibrary.org/UserFiles/File/MCD/640_QLfacts.pdf> [cited 2010. 9. 2].

MARC 레코드를 공유하여 목록을 구축한다. OCLC의 'TechPro' 프로그램은 약 40개 언어로 편목 작업이 가능하여 다국어자료 목록 구축에 활용되고 있다. 퀸즈공공도서관은 비로마자 자료에 대하여 번자표기를 하면서 MARC의 880 필드에 원어를 함께 표기하여 다국어자료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도서관은 1977년부터 이민자 집단과 그들의 정보요구를 분석하며, 그들에게 적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미국생활 적응기술, 문화예술, 영어교육 등을 포함하는 "New Americans Program(NAP)"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정보이용 교육, 건강, 직업훈련, 시민권획득, 이민자법 교육, 주택용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요 이주민 언어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 도서관에서는 다국어장서 순회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문제나 장애로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Mail-a Book"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우편으로 책을 대출해주고 있으며, 7개 국어로 해당 언어의 도서목록을 제공해준다. 그리고 이 도서관의 홈페이지는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한국어, 중국어, 러시아어의 6개 언어로 각종 이용안내와 정보검색을 지원하고 있다.

2. Seattle Public Library¹¹⁾¹²⁾¹³⁾¹⁴⁾¹⁵⁾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공공도서관은 약 50개 언어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그 중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의 14개 언어자료를 활발히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또한 최근 남아프리카 출신의 이주자가 급증하자, 소말리아어나 오로모어 등의 자료에 대한 서비스도 시작하였다. 이 도서관은 지역의 대행사 등을 통해 다국어/다문화자료를 입수함과 동시에 'OCLC Language Sets'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외국어가 어려운 사서들을 위한 패키지 형태의 다국어장서를 공급받고 있다. 이들 자료의 목록을 위해 이 도서관은 OCLC에서 목록공유를 통해 MARC 레코드를 얻는데, 약 40개의 언어로 편목서비스를 제공하는 OCLC의 TechPro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외국어에 능통한 자료선정 담당 사서가 편목작업을 하기도 한다.

이 도서관은 이주민들과 그 청소년, 어린이 자녀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영어 교육, 도서관 이용법, 운전면허 취득, 기타 일상생활 정보 등 이주민이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게임 등을 통해 습득하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이 인상적이다. 이 도서관 홈페이지는 영어, 스

11) Michael Rogers, "Serving up World Languages," *Library Journal*, Vol.128, Issue.11(2003), pp.42-44.

12) The Seattle Public Library 2009 Annual Report,
 <<http://www.spl.org/pdfs/2009AnnualReport.pdf>> [cited 2010. 9. 2].

13) 조용완, 전개논문.

14) Jens Ingemann Larsen, Deborah L. Jacobs, and Ton van Vlimmeren, *Cultural Diversity : How Public Libraries Can Serve The Diversity In The Community*, Paper presented at ALIA 2004,
 <<http://conferences.alia.org.au/alia2004/pdfs/vlimmeren.t.paper.pdf>> [cited 2010. 8. 24].

15) Seattle Public Library Home page, <<http://www.spl.org/>> [cited 2010. 9. 2].

페인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소말리어, 에티오피아어의 7개 언어로 안내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언어별로 제공 가능한 프로그램 안내를 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을 위하여 영어통역서비스의 전화번호를 서비스하고 있다. 이 도서관은 찾아가는 서비스(outreach services)를 담당하는 정규직원을 두어 이민자들을 위해 번역된 안내책자와 도서관 카드신청서 등을 배부하고 이민자들을 방문하여 도서와 자료 등도 제공한다.

3. Toronto Public Library¹⁶⁾¹⁷⁾¹⁸⁾¹⁹⁾

주민의 50%가 캐나다 외부 출신일 정도로 토론토시는 다인종, 다민족사회를 이루고 있다. 2006년 토론토 신규 이민자의 87%가 이 도서관(99개의 분관포함)을 방문하였고, 2004년 다국어자료의 대출량은 약 406만 권으로 전체대출의 14.8%를 차지할 정도로 이 도서관은 이주민의 정착과 적응에 필수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도서관은 약 100개 언어의 장서를 구비하고 있는데, 34개 언어의 경우, 자료담당자들이 해당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수준이다. 다국어자료 입수는 주로 지역의 대행사, 서점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 자료는 국제도서전을 통해 입수하기도 한다. 다국어자료 선정을 위해 시간제로 전문선정자를 이용하며, 도서관 직원이 해결할 수 없는 언어는 퇴직 교사 등 외부 인력도 활용하고 있다.

어린이가 게임을 통해 영어와 도서관을 배우는 'English Can Be Fun', 24시간 전화를 이용하여 12개 언어로 어린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Dial-a-Story', 십대 이민자를 위한 숙제도우미 프로그램과 정보활용교육, 시민권 취득 지원 등 매우 다양한 이주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십 개의 언어별 정착안내 비디오와 책자의 제공, 100개 이상의 언어로 제공하는 전화통역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 방문이 힘든 이주민을 위해 2대의 이동도서관 버스, 6대의 승합차(Van)를 이용하여 이주민 거주지를 적극 찾아가고 있다.

16)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100만 외국인 시대, 다문화 사회와 도서관 서비스," 지금 도서관에서는, 제2호(2007), pp.9-20.

17) Toronto Public Library 2009 Annual Report, <<http://www.torontopubliclibrary.ca/annual-report-2009/>> [cited 2010. 9. 4].

18) Toronto Public Library's Strategic Plan 2004 - 2007, <<http://www.torontopubliclibrary.ca/content/about-the-library/news-publications/strat-plan/strat-plan-2004.pdf>> [cited 2010. 9. 4].

19) Toronto Public Library Home page, <www.torontopubliclibrary.ca/> [cited 2010. 9. 4.].

Ⅲ. 국내 도서관 등의 다국어/다문화 서비스 실태

1. 설문조사 참여기관 정보

웹기반 설문조사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도서관과 다문화 유관기관은 총 119개로 나타났다. 먼저, <도서관/기관 유형>을 살펴보면, 공립 공공도서관이 104개관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사립 공공도서관이 5개관, 작은도서관이 5개관, 이주민 관련 민간단체(다문화자료 코너 등 운영) 2개관, 이주민 관련 민간단체(다문화자료 코너 등 없음) 1개관이었다. <도서관/기관 소속 사서직 수>는, 최소 0명에서 최대 31명까지 다양했는데, 사서수가 0-5명인 도서관이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응답한 전체 도서관 등의 평균 사서 수는 7.67명이었고 표준편차는 6.34로 나타났다.

<표 2> 설문조사 참여 도서관/기관 유형

구분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공공도서관(공립)	104	87.4	88.9
공공도서관(사립)	5	4.2	4.3
작은도서관	5	4.2	4.3
이주민 관련 공공기관(다문화자료 코너 등 운영)	-	-	-
이주민 관련 공공기관(다문화자료 코너 등 없음)	-	-	-
이주민 관련 민간단체(다문화자료 코너 등 운영)	2	1.7	1.7
이주민 관련 민간단체(다문화자료 코너 등 없음)	1	0.8	0.9
계	117	98.3	100.0
결측치	2	1.7	

<표 3> 설문조사 참여 도서관/기관의 사서직 수

구분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구분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0명	2	1.7	1.7	14명	1	0.8	0.9
1명	7	5.9	6.0	15명	1	0.8	0.9
2명	13	10.9	11.2	16명	3	2.5	2.6
3명	14	11.8	12.1	18명	1	0.8	0.9
4명	13	10.9	11.2	19명	2	1.7	1.7
5명	11	9.2	9.5	20명	1	0.8	0.9
6명	2	1.7	1.7	22명	2	1.7	1.7
7명	8	6.7	6.9	23명	1	0.8	0.9
8명	6	5.0	5.2	26명	1	0.8	0.9
9명	1	0.8	0.9	30명	1	0.8	0.9
10명	5	4.2	4.3	31명	1	0.8	0.9
11명	7	5.9	6.0	계	116	97.5	100.0
12명	8	6.7	6.9	결측치	3	2.5	
13명	4	3.4	3.4				

2. 다국어/다문화자료 보유 현황

조사 참여 도서관 등이 보유한 다국어/다문화자료 중 도서는 영어 자료를 소장한 도서관이 77개 도서관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베트남어 자료 47개관, 일본어 자료 40개관, 중국어 간자 자료 39개관, 태국어 자료 22개관, 인도네시아 자료 20개관 등의 순으로 소장도서관 수가 많았다. 도서의 소장권수에서는 영어 자료가 144,428권, 일본어 자료 17,787권, 중국어 간자 자료 13,685권, 베트남어 자료 9588권, 이중언어 자료 3,850권 등의 순이었다. 영어자료와 일본어 자료가 많이 소장된 것은 국내외 이용자의 요구, 국내 대형사나 인터넷 서점 등 다양한 구입방법으로 인한 것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최근 국내의 다문화적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개별 도서관에 중국어 간자 자료와 베트남 자료의 소장도서관 수와 소장권수가 증가하고 있었고, 인도네시아어 자료, 태국어 자료, 타갈로그어 자료 등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⁰⁾

도서 이외에 사진, DVD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유형은 그리 활발하게 구비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잡지, 신문, 비디오테이프, DVD, CD, 디지털컨텐츠 등에서는 영어 등 일부 언어에 국한하여 소장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진의 경우, 영어와 일어 사진 이외에도 국내 다문화 환경과 관련된 중국어 간자,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타갈로그어, 캄보디아어, 방글라데시어, 러시아어 사진과 그 외 중국어 번자,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사진까지도 적은 수나마 소장되고 있었다. 방송채널의 경우, 최근 위성TV 수신 장비의 보급이 증가하면서 이 장비를 통해 이주민 출신국가의 방송을 제공하는 도서관도 증가하고 있었다.²¹⁾

다국어 홈페이지의 제공에 있어, 대부분이 다국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문화/다국어 자료 소장 도서관 수보다 많이 적었다. 이는 다국어 홈페이지의 구축작업이 개별 도서관 차원에서 수행하기에는 번역 등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국어 홈페이지를 구축한 경우에서는 영어가 7개관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어 3개관, 중국어 간자, 중국어 번자, 베트남어, 태국어 각각 2개관, 몽골어와 러시아어가 각각 1개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 조사참여 도서관 등이 보유한 다국어/다문화 도서 중 기타 언어 도서에는 네팔,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아랍, 우즈베키스탄 등의 자료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 조사참여 도서관 등이 보유한 다국어/다문화 도서 이외의 매체에는, 체코, 네팔, 파키스탄 등의 잡지와 스리랑카, 그리스 등의 신문, 스웨덴, 에스파냐, 루마니아, 에스페란토, 폴란드, 우즈베키스탄, 이란, 카자흐스탄, 터키, 우크라이나, 폴란드, 체코, 스와힐리 등의 사진, 카자흐스탄, 폴란드 등의 비디오 자료들이 포함되었다.

〈표 4〉 조사참여 도서관/유관기관 보유 다국어/다문화자료 현황 1

구분	도서			잡지			신문			사전			비디오테이프		
	N	Sum	Mean	N	Sum	Mean	N	Sum	Mean	N	Sum	Mean	N	Sum	Mean
이중언어	11	3,850	350.0	2	2	1.0	0			3	353	117.7	0		
다중언어	3	14	4.7	0			0			1	2	2.0	0		
영어	77	144,428	1875.7	28	147	5.3	25	61	2.4	11	131	11.9	1	3	3.0
일어	40	17,787	444.7	7	17	2.4	3	4	1.3	5	55	11.0	0		
중국어간자	39	13,685	350.9	7	10	1.4	2	2	1.0	8	63	7.9	0		
중국어번자	9	1,372	152.4	1	1	1.0	0			2	3	1.5	0		
프랑스어	4	468	117.0	0			0			4	21	5.3	0		
독일어	3	369	123.0	0			0			5	21	4.2	0		
스페인어	2	23	11.5	0			0			3	9	3.0	0		
포르투갈어	1	32	32.0	0			0			3	7	2.3	0		
이탈리아어	0			0			0			3	9	3.0	0		
베트남어	47	9,588	204.0	2	2	1.0	0			8	22	2.8	0		
태국어	22	1,869	85.0	1	1	1.0	0			5	16	3.2	0		
몽골어	17	1,406	82.7	1	1	1.0	0			5	13	2.6	0		
러시아어	10	534	53.4	0			0			4	15	3.8	0		
인도네시아어	20	2,238	111.9	1	1	1.0	0			5	10	2.0	0		
타갈로그어	14	1,603	114.5	1	1	1.0	0			2	2	1.0	0		
미얀마어	1	5	5.0	0			0			0			0		
힌디어	1	19	19.0	0			0			0			0		
편잡어	0			0			0			0			0		
우르드어	1	12	12.0	0			0			0			0		
싱할리어	1	237	237.0	0			0			0			0		
캄보디아어	14	434	31.0	1	1	1.0	0			3	3	1.0	0		
방글라데시어	4	505	126.3	0			0			2	2	1.0	0		
기타	19	2,268	119.4	2	737 ²²⁾	368.5	1	3	3.0	3	51	17.0	1	11	11.0

〈표 5〉 조사참여 도서관/유관기관 보유 다국어/다문화자료 현황 2

구분	카세트테이프			CD			DVD			방송채널			디지털콘텐츠		
	N	Sum	Mean	N	Sum	Mean	N	Sum	Mean	N	Sum	Mean	N	Sum	Mean
이중언어	0			0			4	4,626	1,156.5	1	1	1.0	4	218	54.5
다중언어	0			0			3	6,884	2,294.7	0			0		
영어	4	1,418	354.5	5	3,976	795.2	8	2,369	296.1	4	11	2.8	5	277	55.4
일어	0			0			3	345	115.0	4	4	1.0	0		
중국어간자	0			0			0			4	18	4.5	1	1	1.0
중국어번자	0			0			0			0			0		
프랑스어	0			0			1	1	1.0	0			0		
독일어	0			0			1	1	1.0	1	1	1.0	0		
스페인어	0			0			0			0			0		
포르투갈어	0			0			0			0			0		
이탈리아어	0			0			0			0			0		
베트남어	1	149	149.0	0			0			1	5	5.0	1	3	3.0

22) 잡지 중 기타언어로 된 종수가 737로 응답이 된 것을 살펴본 결과, 한 다문화도서관에서 네팔어 잡지의 종수를 736로 입력한 것을 확인하였다. 사실상 네팔어 잡지를 736종을 입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는 총권수를 종수로 잘못 기입한 것으로 보인다.

구분	카세트테이프			CD			DVD			방송채널			디지털콘텐츠		
	N	Sum	Mean	N	Sum	Mean	N	Sum	Mean	N	Sum	Mean	N	Sum	Mean
태국어	1	99	99.0	0			0			1	26	26.0	1	1	1.0
몽골어	1	12	12.0	0			0			0			1	1	1.0
러시아어	0			0			0			0			0		
인도네시아어	0			0			0			0			0		
타갈로그어	0			0			0			1	6	6.0	0		
미얀마어	0			0			0			0			0		
힌디어	0			0			0			0			0		
펀잡어	0			0			0			0			0		
우르드어	0			0			0			0			0		
싱할라어	0			0			0			0			0		
캄보디아어	0			0			0			0			0		
방글라데시어	0			0			0			0			0		
기타	0			0			0			0			0		

〈표 6〉 조사참여 도서관/유관기관 보유 다국어/다문화자료 현황 3 : 다국어 홈페이지

구분	빈도	유효백분율 (%)	유효백분율 (복수응답, %)	구분	빈도	유효백분율 (%)	유효백분율 (복수응답, %)
이중언어	-	-	-	러시아어	1	4.8	14.3
다중언어	-	-	-	인도네시아어	1	4.8	14.3
영어	7	33.3	100.0	타갈로그어	-	-	-
일어	3	14.3	42.9	미얀마어	-	-	-
중국어간자	2	9.5	28.6	힌디어	-	-	-
중국어번자	2	9.5	28.6	펀잡어	-	-	-
프랑스어	-	-	-	우르드어	-	-	-
독일어	-	-	-	싱할라어	-	-	-
스페인어	-	-	-	캄보디아어	-	-	-
포르투갈어	-	-	-	방글라데시어	-	-	-
이탈리아어	-	-	-	기타	-	-	-
베트남어	2	9.5	28.6	계	21	100.0	300.0
태국어	2	9.5	28.6	결측치	112		
몽골어	1	4.8	14.3				

3. 다국어/다문화자료 입수방법과 선정주체²³⁾

다국어/다문화 자료(영어, 일어 제외)의 입수방법에 관한 질문에서는 1순위로 국내 다국어도서 공급업체(61.8%), 다음으로 일반 국내 도서공급 업체(17.6%)가 선택되었다. 2순위에서는 일반 국내 도서공급 업체(55.1%)와 국내 다국어도서 공급업체(18.4%)가 많은 응답을 얻었다. 즉, 도서관들은 다국어/다문화자료 입수를 위해 국내 다국어도서 공급업체와 일반 국내 도서공급 업체에

23) 〈표 7〉 다국어/다문화 자료 입수 방법, 〈표 8〉 다국어/다문화 자료의 선정 주체, 〈표 10〉 다국어/다문화 자료의 목록구축 등의 분석은 총 응답 119개 중 다국어/다문화자료 소장 건수를 전혀 기입하지 않는 19개의 응답을 제외하고 나머지 유효한 100개의 응답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도서관이 주도하는 다른 방법들은 매우 미약하였다. 이는 설문에 참여한 대부분이 공립 공공도서관이어서, 이들이 자료구매 시 입찰 또는 수의계약이 용이한 국내업체와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공도서관의 인력 부족과 언어 문제, 행정절차 등 때문에 현실적으로 외국과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구매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국내의 공급업체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²⁴⁾²⁵⁾

한편, 영어, 일어 자료의 입수방법에서는 1순위로 일반 국내 도서공급 업체(48.4%)와 국내 다국어 도서 공급업체(24.2%), 현지 서점이나 출판사, 인터넷 서점(23.2%)가 선택되었다. 2순위에서도 일반 국내 도서공급 업체(36.8%), 국내 다국어도서 공급업체(32.4%), 현지 서점이나 출판사, 인터넷 서점(20.6%) 순이었다. 즉, 영어와 일어자료의 입수에서는 일반 국내 도서공급업체들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었으나, 국내 다문화도서 공급업체도 적지 않은 비중을 보였는데, 이는 이들 업체들이 공공도서관 등에 영어와 일어자료를 공급하던 업체들이며, 최근 영업의 범위를 다문화도서까지 확장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다국어/다문화 자료(영어, 일어 제외)의 입수와 달리 현지 서점이나 출판사, 인터넷 서점이 꽤 큰 비중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사서들이 영어와 일어에 언어 장벽을 느끼지 않고 이들 자료의 직거래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²⁶⁾

〈표 7〉 다국어/다문화 자료의 입수 방법

내용	구분	다국어/다문화 자료 (영어, 일어 제외)			영어, 일어 자료		
		빈도	백분율 (%)	유효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유효 백분율 (%)
입수 방법: 1순위	국내 다국어도서 공급업체	42	42.0	61.8	23	23.0	24.2
	일반 국내 도서공급 업체	12	12.0	17.6	46	46.0	48.4
	현지 서점이나 출판사, 인터넷 서점	4	4.0	5.9	22	22.0	23.2
	현지 도서관이나 기관과의 자료교환	1	1.0	1.5	-	-	-
	현지 지인	3	3.0	4.4	1	1.0	1.1
	기타	6	6.0	8.8	3	3.0	3.2
	계	62	68.0	100.0	95	95.0	100.0
	해당사항 없음	26	26.0		5	5.0	
	결측치	6	6.0				

- 24) 기타에는 모두 공공기관이나 지원기관, 기업체 현지지점, 경제협력단, 지인, 기타 등 단체와 개인으로부터 다국어/다문화자료를 기증받았다는 응답이었다.
- 25) 면담과정에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다문화 도서관(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 국제어린이도서관 등)의 경우는 공립 공공도서관과 달리 국내 대행업체를 통한 자료구매 외에도 기업과 개인의 기증, 현지 지인을 통한 구입 등의 방법도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은 중국 요녕성도서관과 자매결연을 통해 정기적으로, 청주시립의도서관은 중국의 한 학교와 일회에 한해 자료교환을 수행하였고, 청주시립의도서관은 자체적으로 이중언어 녹음도서 CD를 제작하여 이주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다.
- 26) 기타에는 지원기관 등의 기증, 국내서점과 인터넷서점의 동시이용, 희망도서 등의 응답이 포함되어 있었다.

내용	구분	다국어/다문화 자료 (영어, 일어 제외)			영어, 일어 자료		
		빈도	백분율 (%)	유효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유효 백분율 (%)
입수 방법: 2순위	국내 다국어도서 공급업체	9	9.0	18.4	22	22.0	32.4
	일반 국내 도서공급 업체	27	27.0	55.1	25	25.0	36.8
	현지 서점이나 출판사, 인터넷 서점	8	8.0	16.3	14	14.0	20.6
	현지 도서관이나 기관과의 자료교환	1	1.0	2.0	2	2.0	2.9
	현지 지인	2	2.0	4.1	3	3.0	4.4
	기타	2	2.0	4.1	2	2.0	2.9
	계	53	49.0	100.0	68	68.0	100.0
	해당사항 없음	5	5.0		30	30.0	
	결측치	46	46.0		2	2.0	

다음으로, 다국어/다문화 자료(영어, 일어 제외)의 자료선정 주체에 대한 질문에서는 1순위로 도서관이나 기관(58.5%)과 다국어도서 공급업체(33.8%)가 높게 나타났으며, 2순위에서는 다국어도서 공급업체(38.9%)와 도서관이나 기관(33.3%), 이주민 이용자(20.4%) 등의 순이었다. 이주민 이용자의 선정 참여 정도는 1순위에서는 매우 미약하다가 2순위에서 3위로 나타나 아직 이주민 이용자들의 선정 참여가 활발하지 않았다.²⁷⁾ 정리하면, 조사 참여 도서관들은 자료선정에서 도서관 등이 주체가 되고 있으나 다문화도서 공급업체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면담과정에서 도서관측이 자료선정의 소극적 주체인 경우와 적극적 주체인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언어문제나 직원부족 문제로 인해 상당수 도서관들은 “업체측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거나 “업체에서 주는 리스트를 보고 선정”한다고 밝힌 반면, 일부 도서관은 도서관측이 대행업체 등을 방문하여 실물자료를 직접 확인한 다음 자료를 선정하거나²⁸⁾ 인구분포/언어유형, 주제, 이용대상 등의 지침을 제시하고 다문화도서 공급업체들로부터 납품을 받기도 하였으며,²⁹⁾ 일부 도서관들은 해당언어 출신 이주민 등이 자료의 선정에 참여하기도 하였다.³⁰⁾

27) 다국어/다문화자료의 선정주체에 관한 기타 응답에는 기증, 이용자 희망, 자료선정위원회, 지원기관, 권역별 분담수서 등의 응답이 포함되었다.
 28)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의 경우, “주로 업체가 제공하는 구매예정목록을 보고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들으면서 도서관 직원들이 직접 선정한다. 그리고 일부 자료는 대행업체의 매장을 직접 방문해 자료의 외관이나 수장경력 등을 확인하고 비교하면서 현장수서를 한다”고 밝혔다.
 29) 일부 도서관들은 지역 내 외국인 구성비율 정도의 지침을 제시하거나 더 세부적인 지침을 업체에 제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김해다문화도서관의 경우, “계약할 때, 나라별로 예산규모를 짜고 이용자 수준 등의 조건을 지정하면, 대행업체에서 조건에 맞는 도서리스트를 엑셀파일로 제공한다. 그 리스트를 보고 사서가 선정하여 구입한다”고 하였다.
 30) 김해다문화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공간 바로 옆에 모체기관이 함께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상담업무 를 하는 이주민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현지 베스트셀러나 유명한 책들을 선정하기도 하였으며, 국제어린이도서관

영어, 일어 자료의 선정주체에 대한 질문에서는 위와는 달리 1순위에서 압도적으로 도서관이나 기관(79.8%)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영어, 일어도서 공급업체(11.7%)라고 응답하였다. 2순위에서는 영어, 일어도서 공급업체(54.7%), 도서관이나 기관(18.8%), 기타(14.1%), 이주민 이용자(12.5%) 순으로 나타났다. 즉, 영어, 일어자료의 선정은 사서들이 언어장벽을 별로 느끼지 않고 있기에 주로 도서관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도서관공급업체와 이주민 이용자(또는 도서관 이용자)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³¹⁾

〈표 8〉 다국어/다문화 자료의 선정 주체

내용	구분	다국어/다문화 자료(영어/일어 제외)			영어, 일어 자료		
		빈도	백분율(%)	유효백분율(%)	빈도	백분율(%)	유효백분율(%)
자료선정 주체: 1순위	다국어도서(영어/일어 도서) 공급업체	22	22.0	33.8	11	11.0	11.7
	도서관이나 기관	38	38.0	58.5	75	75.0	79.8
	이주민 이용자	1	1.0	1.5	3	3.0	3.2
	기타	4	4.0	6.2	5	5.0	5.3
	계	65	65.0	100.0	94	94.0	100.0
	해당사항 없음	28	28.0		5	5.0	
	결측치	7	7.0		1	1.0	
자료선정 주체: 2순위	다국어도서(영어/일어 도서) 공급업체	21	21.0	38.9	35	35.0	54.7
	도서관이나 기관	18	18.0	33.3	12	12.0	18.8
	이주민 이용자	11	11.0	20.4	8	8.0	12.5
	기타	4	4.0	7.4	9	9.0	14.1
	계	54	54.0	100.0	64	64.0	100.0
	해당사항 없음	5	5.0		5	5.0	
	결측치	41	41.0		31	31.0	

4. 다국어/다문화자료 목록 현황

먼저, 다국어가 지원되는 도서관 전산시스템인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KOLAS3〉(58.2%), 〈KOLAS2〉(30.6%), 〈책꽃이〉(4.1%) 순으로 응답되었다. 시스템업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 시스템이 다국어 문자코드인 유니코드(Unicode)를 지원하는지 확인한 결과, 최근 출시된 〈KOLAS 3〉, 〈DLI2〉, 〈SLIMA-NET〉 정도가 유니코드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응답 도서관의 60%만이 다국어 처리가 가능한 유니코드 시스템을 보유하고, 약 40%는 〈KOLAS 2〉 등 유니코드 미지원(KS C 5601

관의 경우, 모체기관인 학교 재학생의 부모(이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자료선정을 하기도 하였다.
31) 영어, 일어자료의 선정주체에 관한 기타 응답에는 도서관 이용자 또는 이용자 희망도서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그 외 자료선정위원회, 도서담당사서, 지원기관, 인터넷서점, 자원활동가 등의 응답이 포함되었다.

코드 사용)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다.

〈표 9〉 도서관 전산시스템과 버전

구분	빈도	백분율(%)	구분	빈도	백분율(%)
책꽂이	4	4.1	mae 5.1	1	1.0
DLI2	1	1.0	SLIMA-NET	1	1.0
exlis 3.0	1	1.0	Slima S/T	1	1.0
KOLAS 2	30	30.6	XMLAS	1	1.0
KOLAS 3	57	58.2	계	98	100.0
KOLASYS STANDALONE	1	1.0			

다음으로 목록구축 방식에 관한 질문에서 영어, 일어 이외의 다국어/다문화자료는 MARC 기반 도서관 전산시스템(87.5%)을 통한 목록구축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 도서관리 프로그램(3.6%), 자료는 있으나 목록 미구축(3.6%), 이어 수작업, EXCEL/ACCESS 등, 기타가 각각 1.1%로 나타났다.³²⁾ 영어와 일어자료의 경우, MARC 기반 도서관 전산시스템(93.6%), 일반 도서 관리 프로그램(6.4%), EXCEL이나 ACCESS 등(1.1%), 기타(1.1%) 등의 순이었다. 즉, 영어, 일어 이외의 다국어/다문화자료 목록구축에서 MARC 기반 시스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영어, 일어자료에서는 없었던 목록 미구축과 수작업 목록도 등장하는 등 상대적으로 목록 구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영어, 일어 이외의 다국어/다문화자료의 목록 데이터 입력 방식에서는 도서관공급업체의 데이터를 반입하는 경우(78.9 %)로 가장 많았고, 도서관 사서의 작업이 8.8%, 기타 5.2%, 자료는 있으나 목록 미구축 3.5%, 국내거주 이주민이나 해당 언어능통 한국인의 작업과 타 도서관(국중, 타 공공) 데이터 반입이 각각 1.8%로 나타났다.³³⁾ 반면, 영어/일어 자료의 목록 데이터 입력 방식에서는 도

32) 면담과정에서 대부분의 도서관은 유니코드와 MARC 기반 시스템들을, 일부는 KORLAS2나 책꽂이 등 비 유니코드와 MARC 기반 시스템들을, 일부 민간단체 운영 다문화도서관과 자치단체 설립 다문화도서관에서 MARC 기반이 아닌 엑셀파일이나 인쇄형태(바인더, 종이 등)로 목록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니코드 지원 시스템을 사용하는 도서관 담당자들은 “MARC 반입에서는 다국어로 반입되는데, 검색은 일본어를 제외하고는 안된다.”, “웹상에서 다국어 검색이 불가능하다.”, “유니코드가 지원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원활하지 않다.”, “몽골어 폰트가 존재하지 않아 몽골어 구현이 되지 않고 있다”와 같이 현 시스템의 불충분한 다국어지원 문제를 언급하였다. 그리고 다국어가 잘 지원된다는 두 도서관의 시스템을 직접 확인해본 결과, 베트남어 등의 원래 문자가 아닌 유사한 영어 문자로 입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33) 면담과정에서 사서들이 직접 다국어 목록을 하거나(청주시립정보도서관), 자원봉사자와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목록을 하는 경우(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 모두 3호점, 국제어린이도서관), 공공도서관의 순환사서 지원하는 경우(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도서관들은 다국어 목록 데이터를 업체에서 제공받아 도서관 시스템으로 반입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안산다문화자원은도서관은 업체제공 목록을 수정, 보완하거나 필요에 따라 번역비를 제공하여 목록을 하였으며, 남양주 평내도서관은 5명의 이주민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다른 업무와 함께 업체 제공 목록을 수정, 보완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었다.

서공급업체의 데이터를 반입하는 경우가 59.4%, 도서관 사서의 작업 30.2%, 타 도서관(국중, 타 공공) 데이터 반입 6.3% 등의 순이었다. 즉, 영어, 일어 이외의 다국어/다문화자료의 목록 작업에서 업체데이터 의존율이 영어, 일어자료에 비해 월등히 높은 반면, 언어 문제로 인해 도서관 사서의 작업은 월등히 낮은 수준이었지만, 해당언어 사용자인 이주민들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었다.

목록 수준에 대한 질문에서 영어/일어 자료의 경우, 한국어 자료와 동일수준이라는 응답이 71.0%로 나타나 영어와 일어자료는 한국어 자료와 비슷한 수준의 목록이 작성되는 반면, 영어, 일어 이외의 다국어/다문화자료의 경우, 한국어 자료와 동일수준이라는 응답이 43.4%, 한국어 자료보다 간략수준이라는 응답은 49.1%로 나타나, 다국어 미지원 시스템, 비 표준적 목록구축, 자체적 목록구축 역량 부족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낮은 목록수준 문제까지 발생하는 등 목록작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다.³⁴⁾

〈표 10〉 다국어/다문화 자료의 목록구축

내용	구분	다국어/다문화 자료(영어/일어 제외)			영어/일어 자료		
		빈도	백분율(%)	유효백분율(%)	빈도	백분율(%)	유효백분율(%)
목록 구축 방식	MARC 기반 도서관 전산시스템	49	49.0	87.5	88	88.0	91.7
	일반 도서 관리 프로그램	2	2.0	3.6	6	6.0	6.3
	수작업	1	1.0	1.8	-	-	-
	EXCEL이나 ACCESS 등	1	1.0	1.8	1	1.0	1.0
	기타	1	1.0	1.8	1	1.0	1.0
	자료는 있으나 목록 미구축	2	2.0	3.6	-	-	-
	계	56	56.0	100.0	96	96.0	100.0
	해당사항 없음	39	39.0		4	4.0	
결측치	5	5.0		-	-		
목록 데이터 입력 방식	도서공급 업체 데이터 반입	45	45.0	78.9	57	57.0	59.4
	도서관 사서의 작업	5	5.0	8.8	29	29.0	30.2
	국내거주 이주민이나 해당 언어능통 한국인의 작업	1	1.0	1.8	1	1.0	1.0
	타 도서관 데이터 반입	1	1.0	1.8	6	6.0	6.3
	기타 ³⁵⁾	3	3.0	5.2	3	3.0	3.1
	자료는 있으나 목록 미구축	2	2.0	3.5	-	-	-
	계	57	57.0	100.0	96	96.0	100.0
	해당사항 없음	39	39.0		4	4.0	
결측치	4	4.0		-	-		

34) 면담과정에서 일부 도서관 담당자들은 업체에서 제공하는 목록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많고 간단한 편이다.”라거나 “업체의 데이터가 다국어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며 업체 제공 데이터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35) 영어, 일어자료 목록데이터 입력방식의 기타에는 도서관입시 MARC를 제공받고 사서도 작업한다는 응답과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작업한다는 응답이 있었으며, 다국어/다문화자료 목록데이터 입력방식의 기타 응답에는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를 참고로 하여 목록입력을 수작업으로 한다는 응답과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작업한다는 응답, 자원활동가가 작업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1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2권 제1호)

내용	구분	다국어/다문화 자료(영어/일어 제외)			영어/일어 자료		
		빈도	백분율(%)	유효백분율(%)	빈도	백분율(%)	유효백분율(%)
목록 수준	기존 한국어 자료와 동일	23	23.0	43.4	66	66.0	71.0
	기존 한국어 자료보다 세밀	4	4.0	7.5	5	5.0	5.4
	기존 한국어 자료보다 간략	26	26.0	49.1	22	22.0	23.7
	계	53	53.0	100.0	93	93.0	100.0
	해당사항 없음	42	42.0		6	6.0	
	결측치	5	5.0		1	1.0	

이어서, 각 언어별 자료를 소장한 도서관들이 목록작업 시, 언어입력 방식은 어떠한지를 살펴본 왔는데, 조사결과는 다음의 <표 11>과 같다(N = 해당언어 자료 소장 도서관 수).

<표 11> 다국어/다문화 자료의 목록 작업 시 언어입력 방식

내용	구분	빈도	백분율(%)	내용	구분	빈도	백분율(%)
이중언어 (N=16)	원어	2	25.0	태국어 (N=26)	원어	4	16.7
	한국어 번역	1	12.5		원어+한국어번역	6	25.0
	원어+한국어음역	2	25.0		원어+한국어음역+한국어번역	1	4.2
	원어+한국어번역	2	25.0		원어+한국어음역+한국어번역+영어음역	1	4.2
	원어+한국어번역+영어음역	1	12.5		원어+한국어음역+한국어번역+영어음역+영어번역	1	4.2
	계	8	100.0		한국어음역	1	4.2
다중언어 (N=7)	원어+한국어음역	2	50.0	한국어음역+한국어번역+영어번역	1	4.2	
	원어+한국어번역	2	50.0	한국어번역	2	8.3	
	계	4	100.0	한국어번역+영어음역	2	8.3	
영어 (N=84)	원어	35	50.7	한국어번역+영어음역+영어번역	1	4.2	
	원어+한국어음역	4	5.8	영어음역	3	12.5	
	원어+한국어번역	16	23.2	하지 않음	1	4.2	
	원어+한국어음역+한국어번역	8	11.6	계	24	100.0	
	한국어음역	1	1.4	몽골어 (N=21)	원어	2	10.5
	한국어번역	2	2.9		원어+한국어번역	5	26.3
	하지 않음	3	4.3		원어+한국어번역+영어음역	1	5.3
	계	69	100.0		원어+한국어음역+한국어번역+영어음역+영어번역	1	5.3
일어 (N=48)	원어	11	26.2		한국어음역+한국어번역+영어번역	1	5.3
	원어+한국어음역	1	2.4		한국어번역	5	26.3
	원어+한국어번역	15	35.7		한국어번역+영어음역+영어번역	1	5.3
	원어+한국어번역+영어음역	1	2.4		한국어번역+영어번역	1	5.3
	원어+한국어음역+한국어번역	6	14.3	하지 않음	2	10.5	
	원어+한국어음역+한국어번역+영어음역	2	4.8	계	19	100.0	
	원어+한국어음역+한국어번역+영	1	2.4	러시아어	원어	2	16.7

내용	구분	빈도	백분율 (%)	내용	구분	빈도	백분율 (%)	
	어음역+영어번역			(N=14)	원어+한국어번역	1	8.3	
	한국어번역	3	7.1		원어+한국어음역+한국어번역	1	8.3	
	하지 않음	2	4.8		원어+한국어번역+영어음역	1	8.3	
	계	42	100.0		원어+한국어음역+한국어번역+영어음역+영어번역	1	8.3	
중국어 간자 (N=48)	원어	13	32.5		한국어음역	1	8.3	
	원어+한국어번역	11	27.5		한국어번역	4	33.3	
	원어+한국어음역+한국어번역	6	15.0		하지 않음	1	8.3	
	원어+한국어번역+영어음역	1	2.5		계	12	100.0	
	원어+한국어음역+한국어번역+영어음역	2	5.0		인도네시아어 (N=23)	원어	3	14.3
	한국어음역	1	2.5			원어+한국어번역	8	38.1
	한국어번역	3	7.5			원어+한국어번역+영어음역	1	4.8
	하지 않음	3	7.5			원어+한국어음역+한국어번역+영어음역+영어번역	1	4.8
계	40	100.0	한국어음역			1	4.8	
중국어 번자 (N=11)	원어	2	22.2			한국어음역+영어음역+영어번역	1	4.8
	원어+한국어번역	3	33.3	한국어번역		2	9.5	
	원어+한국어음역+한국어번역	2	22.2	영어음역		3	14.3	
	한국어번역	1	11.1	하지 않음	1	4.8		
	하지 않음	1	11.1	계	21	100.0		
	계	9	100.0	타갈로그어 (N=14)	원어	4	36.4	
프랑스어 (N=9)	원어	2	33.3		원어+한국어번역	2	18.2	
	한국어음역	1	16.7		원어+한국어음역+한국어번역	1	9.1	
	한국어번역	1	16.7		원어+한국어음역+한국어번역+영어번역	1	9.1	
	원어+한국어음역+한국어번역+영어음역	1	16.7		한국어번역	2	18.2	
	하지 않음	1	16.7		영어음역	1	9.1	
	계	6	100.0	계	11	100.0		
독일어 (N=10)	원어	2	40.0	미얀마어 (N=1)	한국어번역	1	100.0	
	한국어음역	1	20.0		계	1	100.0	
	원어+한국어음역+한국어번역+영어음역+영어번역	1	20.0	힌디어 (N=1)	하지 않음	1	100.0	
	하지 않음	1	20.0		계	1	100.0	
계	5	100.0	펀잡어 (N=0)	계	0	0.0		
스페인어 (N=5)	원어	1		25.0	우르드어 (N=1)	원어	1	100.0
	한국어 번역	1		25.0		계	1	100.0
	원어+한국어음역+한국어번역+영어음역+영어번역	1		25.0	싱할라어 (N=1)	계	0	0.0
	하지 않음	1	25.0	원어		2	16.7	
계	4	100.0	캄보디아어 (N=15)	원어+한국어번역	2	16.7		
포르투갈어 (N=4)	원어	1		33.3	한국어음역+한국어번역+영어번역	1	8.3	
	원어+한국어음역+한국어번역+영어음역+영어번역	1		33.3				
	한국어음역+한국어번역+영어번역	1	33.3					

내용	구분	빈도	백분율 (%)	내용	구분	빈도	백분율 (%)	
	하지 않음	1	33.3		한국어번역	4	33.3	
	계	3	100.0		영어음역	3	25.0	
이탈리아어(N=3)	원어+한국어음역+한국어번역+영어음역+영어번역	1	50.0	계	계	12	100.0	
	하지 않음	1	50.0		방글라데시어(N=5)	원어	1	25.0
	계	2	100.0			한국어음역	1	25.0
베트남어(N=51)	원어	9	18.4	한국어번역		1	25.0	
	원어+한국어번역	11	22.4	하지 않음		1	25.0	
	원어+한국어음역+한국어번역	6	12.2	계		4	100.0	
	원어+한국어음역+한국어번역+영어음역	1	2.0	기타언어(N=20)	원어+한국어번역	4	30.8	
	원어+한국어음역+한국어번역+영어번역	1	2.0		원어+한국어음역+한국어번역	1	7.7	
	원어+한국어음역+한국어번역+영어음역+영어번역	1	2.0		한국어음역	1	7.7	
	한국어음역	1	2.0		한국어음역+한국어번역+영어음역	1	7.7	
	한국어음역+한국어번역	1	2.0		한국어음역+한국어번역+영어번역	1	7.7	
	한국어번역	6	12.2		한국어번역	2	15.4	
	한국어번역+영어음역	4	8.2		한국어번역+영어음역	1	7.7	
	한국어번역+영어음역+영어번역	1	2.0		영어음역	2	15.4	
	영어음역	4	8.2		계	13	100.0	
	하지 않음	3	6.1					
	계	49	100.0					

위 <표 11>과 같이 조사된 목록입력시 언어입력 유형 항목을 다시 원어를 포함하는 목록구축 도서관의 비율, 목록 미구축 도서관의 비율, 목록구축시 다양한 언어입력 유형의 수 등을 추가 검토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첫째, 원어 포함 목록방식(예: 원어 또는 원어+타언어 등)의 비율을 보면, 영어와 일어자료는 원어 포함 목록구축 비율이 91.3%, 88.1%로 나타났고 최근의 다문화환경을 반영하는 언어 중 중국어 간자는 82.5%로 상대적으로 목록의 원어제공 비율이 높았으나,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방글라데시어 등의 경우는 59.2%, 54.2%, 47.4%, 50.0%, 61.9%, 33.3%, 25.5% 등으로 나타나 실제 이용자인 이주민들의 목록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보였다. 둘째, 목록 미구축 도서관의 비율을 언어별로 살펴보면, 이중언어, 다중언어, 타갈로그어, 미얀마어, 우르두어, 캄보디아어, 기타 등의 언어자료는 원어이거나 다른 언어이거나 어떠한 언어라도 목록이 구축되고 있었으나, 힌디어 100%, 이탈리아어 50%를 비롯, 나머지 언어들도 33.3%에서 4.2%의 도서관 등이 목록을 하지 못한 상태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언어별 자료의 목록구축 시 언어입력 방식이 매우 다양하였다. 특히 국내 다문화 환경과 관계 깊은 중국어 간자,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등의 경우, 각각 8, 13, 12, 9, 9가지 방식으로 입력되고 있었는데, 이처럼 목록언어 유형과 수준의 편차가

크게 발생한다면 향후 개별 도서관의 다국어/다문화자료 목록의 공동 활용에 많은 장애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2〉 다국어/다문화자료의 목록 작업 시 언어입력 방식 세부 분석

구분	이중언어	다중언어	영어	일어	중국어간자	중국어번자	프랑스어	독일어
원어 포함 목록방식	87.5%	100.0%	91.3%	88.1%	82.5%	77.8%	50.0%	60.0%
목록을 하지 못함	0.0%	0.0%	4.3%	4.8%	7.5%	11.1%	16.7%	20.0%
언어입력 방식 유형	5	2	7	9	8	5	5	4
자료소장 도서관수	8	4	69	42	40	9	6	5

구분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원어 포함 목록방식	50.0%	66.7%	50.0%	59.2%	54.2%	47.4%	50.0%	61.9%
목록을 하지 못함	25.5%	33.3%	50.0%	6.1%	4.2%	10.5%	8.3%	4.8%
언어입력 방식 유형	4	3	2	13	12	9	8	9
자료소장 도서관수	4	3	2	49	24	19	12	21

구분	타갈로그어	미얀마어	힌디어	편집어	우르두어	싱할라어	캄보디아어	방글라데시어	기타
원어 포함 목록방식	72.7%	0.0%	0.0%	·	100.0%	·	33.3%	25.5%	41.7%
목록을 하지 못함	0.0%	0.0%	100.0%	·	0.0%	·	0.0%	25.5%	0.0%
언어입력 방식 유형	6	1	1	·	1	·	5	4	8
자료소장 도서관수	11	1	1	0	1	0	12	4	12

다음으로 다국어/다문화자료의 원어 입력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는 〈표 13〉과 같이, 언어능통자 부재의 응답율이 가장 높았고 목록시스템의 지원 미비 역시 매우 높은 응답을 보인 반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거나 기타의 응답은 매우 낮았다.

〈표 13〉 다국어/다문화자료의 원어 입력을 하지 못하는 이유

구분	빈도	백분율(%)	유효백분율(%)	유효백분율(복수응답, %)
언어능통자 부재	39	30.2	47.0	41.9
목록시스템 지원 미비	37	28.7	44.6	39.8
필요성 못 느낌	4	3.1	4.8	4.3
기타	3	2.3	3.6	3.2
해당사항 없음	39	30.2		41.9
계	122	94.5	100.0	131.2
결측치	7	5.4		

이어서, 다국어/다문화자료 검색방법 질문에서는 ‘도서관/기관 홈페이지의 도서검색시스템’을 통한 제공방식이 가장 많았고, ‘수기로 된 도서대장 등 열람’, ‘홈페이지 게시(HTML이나 EXCEL

등), '기타', '자료는 있으나 제공하지 않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기 도서대장 제공, 검색 미제공, 기타 등 20% 정도가 아예 검색이 안되거나 웹기반 다국어자료 검색이 불가능한 환경인데다, 도서검색시스템을 통한 다국어 자료검색의 응답 중 실제 상당수 도서관 시스템이 유니코드 미지원 시스템으로 목록을 구축한 것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이주민들이 모국어로 모국어자료를 검색하는데 매우 큰 난관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³⁶⁾

〈표 14〉 다국어/다문화자료를 이주민 이용자가 검색할 수 있는 방법

구분	빈도	백분율(%)	유효백분율(%)	유효백분율(복수응답, %)
도서검색시스템	67	55.8	69.1	69.1
홈페이지 게시	11	9.2	11.3	11.3
도서대장 등 열람	12	10.0	12.4	12.4
기타	5	4.2	5.2	5.2
제공 안함	2	1.7	2.1	2.1
해당사항 없음	20	16.7		20.6
계	117	97.6	100.0	120.6
결측치	3	2.5		

5. 다국어/다문화 서비스 제공 현황

다국어/다문화 자료 이용방법 질문에서는 〈표 15〉와 같이 96.3%가 자료의 관외 대출과 열람을 허용하였으며, 자료의 관내 열람만 허용하는 경우는 3.7%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다국어/다문화자료의 관외대출 허용시, 이주민의 대출자격에 관한 질문에서 81.5%가 '외국인 등록증 보유자까지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14.8%는 한국국적 취득자에 한해 대출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자료분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도서관의 입장이 과하게 반영된 보수적 자세라 할 수 있다. 불법체류자까지 관외대출이 허용되는 경우는 3.7%였다.

〈표 15〉 다국어/다문화자료에 대한 자료이용 방법과 관외대출을 허용시의 대출자격

구분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자료의 관외 대출과 열람	78	78.0	96.3
자료의 관내 열람	3	3.0	3.7
계	81	81.0	100.0
해당사항 없음	17	17.0	
결측치	2	2.0	

36)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니코드 지원 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다국어 입력과 검색에는 상당한 애로를 겪는 도서관의 경우도 고려한다면, 실제 이주민이 모국어 자료를 모국어를 통해 검색할 수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한국국적 취득자에 한함	12	12.0	14.8
외국인 등록증 보유자까지 가능	66	66.0	81.5
불법체류자까지도 가능	3	3.0	3.7
계	81	81.0	100.0
해당사항 없음	16	16.0	
결측치	3	3.0	

제공하고 있는 다국어기반 정보서비스에 관한 질문(복수응답)에서는 <표 16>과 같이 다국어 기반의 면대면 참고봉사가 가장 많았으며, 다국어 동화구연, 안내 시설 등에 대한 다국어 표시, 기타 등의 순으로 많았다. 반면에, 다국어 홈페이지, 다국어 기반의 온라인 참고봉사, 다국어 북스타트, 다국어 신청양식 제공 등은 상대적으로 적게 제공되고 있었다.

<표 16> 제공하고 있는 다국어 기반 정보서비스

구분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유효 백분율(복수응답, %)
다국어 기반의 면대면 참고봉사	19	15.3	28.8	20.4
다국어 기반의 온라인 참고봉사	5	4.0	7.6	5.4
다국어 북스타트	5	4.0	7.6	5.4
다국어 동화구연	10	8.1	15.2	10.8
다국어 홈페이지	6	4.8	9.1	6.5
안내 시설 등에 대한 다국어 표시	9	7.3	13.6	9.7
다국어 신청양식 제공	3	2.4	4.5	3.2
기타	9	7.3	13.6	9.7
해당사항 없음	51	41.1		54.8
계	117	94.3	100.0	125.8
결측치	7	5.6		

제공하고 있는 다국어/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이벤트에 관한 질문(복수응답)에서는 <표 17>과 같이 '문화교실'을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글교실', '각 나라 문화소개', '다문화가정 학습지원', '기타'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지역사회 교실(역사, 향토탐방 등)'과 '국적 취득 시험 준비' 등은 상대적으로 제공하는 도서관의 수가 적었다.

<표 17> 제공하는 다국어/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이벤트

구분	빈도	백분율(%)	유효백분율(%)	유효백분율(복수응답, %)
한글교실	21	13.4	19.1	22.1
문화교실	30	19.1	27.3	31.6

구분	빈도	백분율(%)	유효백분율(%)	유효백분율(복수응답, %)
지역사회 교실	9	5.7	8.2	9.5
다문화 가정 학습 지원	16	10.2	14.5	16.8
국적 취득 시험 준비	3	1.9	2.7	3.2
각 나라 문화소개	18	11.5	16.4	18.9
기타	13	8.3	11.8	13.7
해당사항 없음	42	26.8		44.2
계	152	96.9	100.0	160.0
결측치	5	3.2		

한편, 설문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방문 및 면담과정에서 다문화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어려운 점에 대해 질문한 결과, “(지역 내)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다문화가정 대상 프로그램을 산발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다문화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이 어렵다.”,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이주여성들이 생계나 직장문제로 도서관 이용이 저조하다.”, “도서관이 이주민 거주지역과 떨어져 있어 방문이 쉽지 않다.”³⁷⁾라는 응답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었으며, “(민간단체여서) 사서인력 채용 여건이 되지 않아 도서관 관리가 안 된다.”, “개관 이후 다문화 도서 보충이 안 된다.”는 응답들도 공립공공도서관이 아닌 도서관에서 자주 나타났다.³⁸⁾

6. 다국어/다문화자료 종합목록 및 상호대차 참여의향

개별 도서관이 소장한 다국어/다문화 자료를 언어별로, 다시 연령별, 주제별 등으로 세분화한 한 도서관에서 특정 국가 출신 이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의 양이 극히 제한되는 상황에서 다국어/다문화자료 종합목록 및 상호대차는 향후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다국어/다문화자료 종합목록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49.1%는 ‘조금 필요’를, 43.9%는 ‘많이 필요’를 선택하여 9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다국어/다문화자료의 종합목록 참여 의향 질문에서는 ‘반드시 참여’ 24.3%, ‘가급적 참여’ 67.8% 등 92%의 도서관들이 참여의향을 보여 일선 도서관들이 다국어/다문화자료 종합목록의 필요성 인식과 동참의지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종합목록 구축시, 다국어/다문화자료의 목록데이터 제공 의향에서도, 91.3%(반드시 참여 25.2%, 가급적 참여 66.1%)가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다국어/다문화자료의 상호대차 프로그램

37) 방문한 도서관 중 일부는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이주여성들이 별로 거주하지 않는 지역(보통 중산층 거주지역)에 위치하거나 이주민이 많은 거주지의 도서관이라도 실제 도서관의 위치와 이주민의 직장이나 거주지 또는 휴일에 모이는 지역과 떨어져 있어 도보가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접근가능한 도서관이 많이 있었다.

38) 일부지만, 다국어/다문화자료를 구비하고 시설을 갖추고 개관식을 한 이후에는 지속적인 장서확충을 하지 않거나 전문사서 없이 도서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한 자원봉사자나 공공근로 인력 위주로 도서관 운영을 하는 사례들도 방문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8〉 다국어/다문화자료 종합목록 및 상호대차 참여의향과 과제

내용	구분	빈도	백분율(%)	유효 백분율(%)
다국어/다문화자료의 종합목록 필요성	많이 필요	50	42.0	43.9
	조금 필요	56	47.1	49.1
	조금 불필요	6	5.0	5.3
	많이 불필요	0	0.0	0.0
	모름	2	1.7	1.8
	계	114	95.8	100.0
	결측치	5	4.2	
다국어/다문화자료의 전국적 종합목록 참여 의향	반드시 참여	28	23.5	24.3
	가급적 참여	78	65.5	67.8
	가급적 불참	6	5.0	5.2
	반드시 불참	0	0.0	0.0
	모름	3	2.5	2.6
	계	115	96.6	100.0
	결측치	4	3.4	
다국어/다문화자료의 목록데이터 제공 의향	반드시 참여	29	24.4	25.2
	가급적 참여	76	63.9	66.1
	가급적 불참	5	4.2	4.3
	반드시 불참	0	0.0	0.0
	모름	5	4.2	4.3
	계	115	96.6	100.0
	결측치	4	3.4	
다국어/다문화자료의 상호대차(대출) 프로그램 참여 의향	반드시 참여	23	19.3	20.2
	가급적 참여	74	62.2	64.9
	가급적 불참	10	8.4	8.8
	반드시 불참	0	0.0	0.0
	모름	7	5.9	6.1
	계	114	95.8	100.0
	결측치	5	4.2	
내용	구분	빈도	백분율(%)	유효백분율(복수응답, %)
다국어/다문화자료의 상호대차 프로그램의 과제	자료택배비	94	42.3	81.7
	대출자격	93	41.9	80.9
	연체료부과	8	3.6	7.0
	사립공공이나 작은도서관 참여	12	5.4	10.4
	기타	8	3.6	7.0
	모름	3	1.4	2.6
	계	218	98.2	189.6
	결측치	4	1.8	

운영시, 참여 의향에서는 85.1%(반드시 참여 20.2%, 가급적 참여 64.9%)가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다국어/다문화자료의 상호대차(대출) 프로그램 운영 시, 주요 해결과제에 관한 질문(2개 선택)에서는 ‘자료 택배비’ 문제(81.7%)와 ‘대출자격(국적, 비자, 미등록 등)’ 문제

(80.9%)가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7. 다국어/다문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과제

국내 도서관의 다국어/다문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이 해야 할 과제들의 중요도를 최저 1점, 최고 5점으로 매기도록 한 질문에서 6개 항목 모두 4.0 이상의 중요도를 보여, 국가적 차원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이 다국어/다문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과제들이 매우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9>와 같이 도서관들은 다국어/다문화서비스 제공에 관한 기술적 업무(technical services)들에 대해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입장은 연구과정에서 방문한 15개 도서관 대부분에서 들을 수 있었다.³⁹⁾ 이는 개별 도서관 등이 부족한 인력과 한정된 예산의 조건 하에서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를 실시하고 자료를 구입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언어의 해석과 입력, 유니코드 등과 같은 기술적 문제들을 스스로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부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제시된 6개 과제 중에서 최고점수 1위와 2위의 과제 모두가 다문화자료의 목록 구축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는 일선의 도서관들이 다국어/다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가장 해결이 시급한 문제가 바로 다국어 목록 문제에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자료입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도서관과 유관기관들이 최근 다문화자료 공급업체의 증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입수문제가 수월하게 되자, 목록에서 발생하는 다국어 문자 입력과 처리, 전산시스템의 유니코드 지원 문제 등에 관한 문제해결 욕구가 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일선 도서관과 유관기관의 다국어/다문화서비스 향상을 위해 국가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에 대해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향후 체계적인 내부 논의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제공을 위한 방법 마련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표 19> 다국어/다문화 서비스 활성화와 관련한 국립중앙도서관이 해야 할 과제 중요도

과제 구분	응답수	합계	평균	표준편차
1. 도서관 및 유관기관들을 위한 다국어/다문화자료의 구입/교환 대행	114	455	4.0	1.124904
2. 다국어/다문화자료의 종합목록/상호대차 시스템 운영	113	451	4.0	1.013265
3. 개별 도서관 등을 대신한 다국어/다문화자료에 대한 목록 구축 대행	114	504	4.4	0.891402
4. 개별 도서관 등이 준수해야 할 다국어/다문화자료 목록지침의 개발	113	503	4.5	0.834428
5. 아날로그/디지털 다국어/다문화 자료/콘텐츠의 제작과 배포(예: 다국어 도서관 이용안내, 다국어 생활안내, 온라인 다국어 전래동화 등)	113	488	4.3	0.889075
6. 도서관 등에서 다국어/다문화 담당 사서/직원/활동가/관련업체/전문가가 참여해 전 문지식을 공유하고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구축	113	482	4.3	0.906501

39) 일부를 소개하면, “각국의 다문화 필수 권장도서 목록을 배포해주면 좋겠다.”(남양주 평내도서관), “기술적인 부분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로 담당해야 한다.”(서울 동대문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 “목록구축이나 다국어 콘텐츠 개발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해줘야 한다.”(청주기적의도서관), “외국도서 구입에 관세가 많이 붙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공동구매를 하면 좋겠다.”(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 3호점) 등이었다.

Ⅳ. 국내 도서관 등의 다국어/다문화 서비스의 발전방안

1. 국가 도서관 정책단위 차원의 다국어/다문화 서비스 발전 방안

다국어/다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에 대한 설문조사와 15개 도서관에 대한 방문 및 면담조사를 통해 전국의 여러 도서관들이 지역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이주민 이용자들을 위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번 설문조사와 방문 및 면담조사를 통해 지역의 도서관들은 기존의 도서관서비스와 달리, 더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요되고 크고 많은 언어장벽이 버티고 있는 다국어/다문화서비스를 위해 국가 도서관 정책단위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었다. 최근 2-3년 전부터 도서관정보 정책위원회와 국립중앙도서관 등이 다국어/다문화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⁴⁰⁾ 아직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국가도서관'다운 다국어/다문화 관련 정책이나 사업들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수행되기보다는 각 단위별로 개별적이고 파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현 단계의 다국어/다문화서비스의 수준을 한 차원 더 높게 체계화,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국가도서관 단위별 주요 과제의 추진이 요구된다.

먼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국가 도서관정책의 수립과 조정,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예산의 확보를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내 도서관들의 다국어/다문화서비스에 관련해서도 국가적인 정책수립과 예산확보 등에 관한 역할수행이 필요하다. 이번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에 다국어/다문화 관련 정책이 처음 포함된 것도 매우 의미있지만, 그 내용이나 규모는 처음인 만큼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발전계획에서는 국내 도서관들의 다국어/다문화서비스의 발전에 필수적인 정책과 예산을 포함시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2009-2013년간 계획이 시범사업 수준이었다면, 차기 5개년 계획(2014-2018)은 다국어/다문화 도서관서비스의 실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준이 요구된다. 그 과정에서 국립중앙도서관과 주요 다문화서비스 제공 도서관들과의 협의와 논의가 필수적이며, 특히 국가적 차원의 역할분담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속적인 협력의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의 활동도 국내 여러 도서관의 다국어/다문화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확장되고 있지만, 아직 국립중앙도서관 내 각 부서와 분관이 개별적으로 다국어/다문화 관

40)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의 'Ⅲ. 지식정보격차 해소로 사회통합에 기여' 중 '과제번호 3-1-5 다문화가정을 포용하는 도서관서비스 제공' 항목을 통해 주민 밀집 거주지역 도서관(2개소)에 이주민 전용코너 설치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중장기전략 수립 및 각종 행사개최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은 2009년부터 계속하여 사서교육훈련 프로그램 중 <도서관다문화서비스> 과정을 개설하고, 디브리 내 다문화정보 포털을 운영하였으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통해 다문화가정을 위해 다국어로 한국 전래동화 콘텐츠를 제작, 배포하고 다문화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런 활동을 수행할 뿐이며 아직 다국어/다문화 관련 국가적 차원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 이에 향후 국내 도서관들의 다국어/다문화서비스의 일대도약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요 과제들을 설문조사, 방문 및 면담조사, 외국 국가도서관 또는 주립도서관의 실행사례 등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0〉 국내 다국어/다문화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요 과제

주요과제	세부내용
다국어/다문화자료 입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이주민 출신 국가의 대표도서관들과 정기적, 지속적 자료교환 추진 : 해당 국가의 자료를 필요로 하는 개별도서관들을 위한 입수 대행을 병행 - 장기적으로 미국의 Library of Congress, 호주의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와 같이 동남아 등 다국어/다문화자료의 입수를 위한 해외사무소를 설치해 국립중앙도서관 자체수집 및 개별도서관들을 위한 입수 대행⁴¹⁾
다국어/다문화자료 목록 수준 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도서관의 다양한 다국어/다문화자료 목록구축과 낮은 목록데이터 수준을 개선하고 향후 국가적인 종합목록 구축 토대 마련을 위해 목록지침의 제시 필요 - 필수 입력 항목의 지정, 목록 언어의 선택 등과 관련된 기본적 수준의 목록지침의 개발과 보급, 교육, 특히, 다국어/다문화자료의 목록 구축이 방치된 도서관과 다문화 유관기관에 대한 교육과 지원, 목록구축 사서인력 확보 방안 모색 - 유니코드와 MARC기반의 전산시스템 구비가 힘든 민간단체 소속 다문화도서관을 위한 시스템 구축 대안 마련 필요
다국어/다문화자료 종합목록과 상호대차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도서관이 소장한 다국어/다문화자료의 존재확인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종합목록의 구축을 위한 준비 : 종합목록 시스템 전반의 계획과 설계, 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영 등에 대한 계획 수립 필요 - 종합목록시스템은 향후 다국어/다문화자료의 상호대차 체계로 발전 : 다국어/다문화자료를 소장한 도서관의 유형이 다양하고, 주 이용자층의 특성이 기존 국내주민과 다르므로 상호대차를 위한 사전 준비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이주민과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위한 컨텐츠의 개발 및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추진한 한국 전래동화의 영어/베트남어 지원 애니메이션 제작과 같은 다국어/다문화 관련 컨텐츠의 지속적 제작과 배포 : 주로 저작권(번역권)이 없거나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국내의 전래동화 등을 한국어와 다국어를 포함하는 컨텐츠로 제작, 보급 - 그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주여성 등의 도서관 이용, 정보활용, 기타 한국사회의 정착과 적응에 관련된 한국어, 취업, 가족, 건강, 생활, 여가, 한국사회 이해 등의 다양한 컨텐츠의 제작과 보급 필요
다국어/다문화도서관 협력체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국어/다문화자료의 언어적 특성이나 주 이용자들의 특성 등이 기존의 도서관과는 매우 다른 상황에서 다국어/다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들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며, 협력적 다국어/다문화자료의 입수, 종합목록 및 상호대차 시스템 구축, 기타 국내 다국어/다문화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제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협력체의 구성과 운영 필요⁴²⁾ - 각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담당자들이 자료입수 정보, 관련업체 정보, 다국어/다문화 프로그램 감사정보, 다국어지원 전산시스템 정보, 기타 우수사례와 관련 노하우 등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Wiki 사이트 또는 웹사이트를 개발
다국어 안내표지와 양식, 다국어 홈페이지의 개발과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도서관들이 영어와 일어 등의 언어 이외의 다국어로 된 각종 신청서, 양식 등과 도서관 내부 안내표지(화장실, 식당, 자판기 등), 환영문구 등에 대해 다국어 기반 문구나 이미지 형태로 제공 - 개별 도서관들이 도서관 홈페이지의 다국어버전을 제작하는 것 역시 어렵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과 관련한 공통된 내용(개관시간, 자료실 위치, 대출권수, 연체규정 등)의 표준 다국어 포맷을 제공하여 개별도서관이 필요에 따라 수정, 추가, 삭제하도록 제공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개설된 다문화교육과정을 더욱 내실화가 필요 : 다문화의 이해, 다문화자료 입수,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등 현재의 교육과정에 더하여 다국어 자료의 목록작업에 대한 해설과 실습(유니코드 관련 내용 포함), 지역사회와의 협력방안, 도서관 안내자료 제작 방안, 찾아가는 서비스(이동도서관, 순회문고 등) 방안 등 교육 내용의 추가 - 국내 도서관의 다국어/다문화 관련 서비스 모범사례 발굴과 포상, 그 외 개별 도서관의 다국어/다문화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제공 등 - 기존 디브리리(http://www.dibrary.net) 내 다문화정보 포털 운영 강화

41) 조용완, 이은주, 전게서.

42) 외국의 경우, 특정 다국어자료와 관련된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협력기구들이 활동 중에 있는데, East Asian Library Resources Group of Australia(EALRGA), The Committee on Research Materials on Southeast Asia

2. 지역 도서관 차원의 다국어/다문화 서비스 발전 방안

본 연구의 설문조사와 15개 도서관에 대한 방문 및 면담조사를 통해 지역에서 이주민 이용자를 위해 다국어/다문화자료를 구비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립 공공도서관, 사립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등에서 향후 추진해야할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1> 국내 다국어/다문화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지역 도서관의 주요 과제

주요과제	세부내용
다국어/다문화자료 기반 서비스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국어/다문화자료 유형의 다각화 : 조사결과 다국어/다문화자료가 도서에 국한되어 있고, 신문이나 잡지, 시청각자료 등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점은 향후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다국어도서 공급업체 위주의 탈피 : 자료입수의 주 통로가 현실적으로 다국어도서 공급업체가 중심이 되겠지만, 이 이외의 다양한 방법(인터넷 서점, 자매도시 도서관 등을 통한 자료교환, e-book 구독, 자체 제작, 기증 등)을 병행 필요 - 자료 선정시 수요자인 이주민의 참여 확장 : 주기적으로 지역 내 이주민 그룹(지원그룹) 대상 수요조사 실시 및 이주민의 자원봉사자나 계약직원 채용으로 업체 자료리스트에 대한 검토 및 선정에 참여 확대 - 다국어 자료목록의 홈페이지 게시와 인쇄자료 배포, 지역 내 유관기관과 주요 이주민 그룹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자료이용 활성화
다국어 목록 구축을 위한 자구적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국어 기반의 목록 구축 실시 : 주 이용자인 이주민들의 다국어/다문화자료 이용 편의제공을 위해 최대한 다국어 기반의 목록 구축 필요, 유니코드 미 지원 시스템을 보유하거나 비 MARC 시스템을 보유한 경우, 유니코드가 지원되고 향후 MARC 시스템으로 반입가능한 Excel이나 Access 등 활용하여 홈페이지 게시 및 인쇄물 제작 배포 - 이주민의 목록 인력 활용 : 최근의 다문화환경을 반영하는 언어권 자료의 원어입력 비율이 낮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내 결혼이주여성 등을 시간제, 계약직, 공공근로 등으로 채용하여 다국어 입력과 한국어 음역, 번역에 활용⁴³⁾
다국어 참고봉사의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 인력의 다국어 참고봉사 업무에 활용 : 한국어와 한국사회에 능통하며, 동일 국가출신 이주민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도서관의 시간제 직원이나 공공근로 등으로 채용(요일별/시간대별로 언어를 지정해 참고봉사를 수행) - 이주민의 활용으로 도서관의 다문화 관련 업무 효율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도서관을 통한 이주민의 성공적 정착 모델 발굴 가능 - 참고봉사 외 다국어/다문화도서의 선정, 입수, 목록 등 다양한 업무 수행 가능
찾아가는 서비스의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의 생활환경과 떨어진 도서관의 입지와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이주민의 생활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의 개발과 시행 - 기존 이동도서관에 다국어/다문화자료의 구비하고 이주민 거주지/근무지를 순회하는 등 이동도서관 서비스의 다문화적 확장 - 지역 내 또는 인근 지역의 이주민 접근 용이한 기업체, 시설, 단체 등에 다국어/다문화자료를 일정기간 위탁 운영하는 순회문고의 제공 -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농어촌 지역 도서관의 경우, 지역주민과 이주민을 위한 교통수단 제공
지역사회 내 다문화 유관기관과의 적극적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복지관,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과 다문화 사업에서 상호 중복문제 완화를 위한 대책 필요 - 지역 내 유관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상호 중복방지와 도서관의 다문화 관련 사업에 적극적 협력과 참여 유도 - 이주민 그룹이나 다문화 유관기관과의 소통 활성화 : 다문화유관기관의 대표나 주요 이주민 그룹의 대표 등을 도서관 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하거나 도서관 내 공간을 지역의 다문화 관련 행사나 모임 공간으로 제공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도서관의 다국어/다문화 정보서비스의 모범 사례의 창출과 정보공유 - 도서관 이용안내, 각종 신청 양식, 환영문구, 시설안내 등을 다국어로 번역하여 홈페이지로 구축하거나 출력하여 게시

(CORMOSEA), Seminar on the Acquisition of Latin American Library Materials(SALALM) 등을 비롯한 다양한 논의기구들이 미국과 호주 등을 중심으로 존재한다.

43) 남양주 평내도서관과 성남 구미도서관에서는 이미 결혼이주여성들을 계약직 등으로 채용하여 도서관 업무에 투입하고 있다. 그리고 도서관 영역은 아니지만 정부 부처나 자치단체 산하의 이주민 상담센터, 법원, 복지관 등 많은 곳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을 상담, 통역, 정착지원, 다문화강사 등으로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V. 결 론

대체로 2000년대 중반부터 국내 도서관계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다국어/다문화서비스는 처음에 한글교실과 문화교실 중심으로 출발하였다가 최근에는 다국어/다문화자료에 기반한 서비스로, 민간단체의 활동의 일부에서 공공도서관 활동의 일부로 성장, 확장하고 있다. 다행히도 전국의 여러 도서관들이 새로운 다국어/다문화 서비스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부분적이나마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 속에서 다국어/다문화 서비스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였고, 국립중앙도서관은 사서교육훈련 프로그램 과 다국어 기반 콘텐츠의 제작, 다문화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앞의 도서관 현장 방문 및 면담조사와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다국어/다문화자료의 선정과 입수과정의 개선, 다양한 다국어 콘텐츠의 개발과 보급, 다국어 기반 목록시스템 구축과 목록수준의 제고, 종합목록 구축과 상호대차를 위한 기반 마련, 다국어 참고봉사의 실시,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의 개발, 지역사회 내 다문화 유관기관과의 적극적 협력 등 진일보된 다국어/다문화서비스를 위해 해결해야 할 숙제들로 국내 도서관계의 앞에 등장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국가적 도서관 정책단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개별도서관들이 각개약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이러한 과제들을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각 영역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면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다국어/다문화 관련 도서관 서비스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도서관 단위와 지역사회에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다국어/다문화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는 개별 도서관 간의 명확한 역할규정과 그에 맞는 역할분담이 있어야 한다. 즉, 다국어/다문화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직접 제공하는 역할은 지역사회의 개별 도서관이 담당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각 도서관의 다국어/다문화 도서관 서비스 관련 정책을 준비하고 각 도서관들의 이용자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술적, 법적, 제도적 토대를 제공하는 역할은 국가 도서관 단위에서 담당하여야 한다. 이러한 역할분담 체제 하에서 앞 장에서 언급된 각 부분들의 다국어/다문화 도서관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과제들을 추진한다면 이 분야 서비스의 상당한 진전을 이룰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내 도서관들의 효과적인 다국어/다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국립중앙도서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각자의 역할과 사업내용을 분명히 구분하여 상호간의 다국어/다문화 관련 중복, 유사사업 실시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내에서도 다국어/다문화자료 관련부서, 다문화 관련 사서연수 담당부서, 다국어/다문화 관련 디지털 정보 이용 관련부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 관련부서들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집행이 필수적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개별 도서관들은 이주민 등을 대상으로 다국어/다문화서비스와 프로그램 등

을 직접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별 도서관들은 같은 지역사회 내에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각종 복지관,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과 중복되는 사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가급적 '도서관'이라는 정체성을 토대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특히 지역 내 이주민들을 놓고 도서관과 다른 기관들이 서로 경쟁하듯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서로의 역량을 불필요하게 소진하는 행위이므로 도서관들은 사전에 지역 내 다문화 관련 기관, 단체, 이주민 그룹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도서관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특화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상호간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지역의 다문화 인구 증가에 맞춰 비록 작은 규모이지만 다문화 전문 도서관 또는 다문화 코너 등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 산하기관들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다문화도서관 개관 시점까지만 예산과 인력, 자료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어렵게 만든 다문화 전문 도서관이 이주민들의 정착과 적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